

김영록號, 전남 제2도약 '2020 6+3플랜' 시동 걸었다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실현 3대 핵심과제 유치위한 발전전략 에너지신사업에 48.5조 투입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총력

전남도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2020 6+3 플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 6+3 플랜'은 2020년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실현과 '3대 핵심과제' 유치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전남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김영록호 발전전략이다.

블루 이코노미는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청정 자원과 역사·문화자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개념의 발전 비전이다.

전남도는 올해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6대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의 35개 세부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에 나섰다.

또, 국가 경제 발전전략과 연계해 지



전남도청 전경



김영록 전남도지사

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서남해안 일원에 48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8.2GW(기가와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12만여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전남도는 민간 발전사의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구축과 배후단지, 해상운송 지원부두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전과 발전사업 추진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2월에는 발전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상반기 중에는 항만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식'을 갖게 된다.

또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3대 핵심과제의 유치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3대 과제인 의과대학,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순항할 경우 전남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미 올해 초 양 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민간 유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태세에 나섰다.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의 오랜 명문인 의과대학을 전남에 유치하는데 있다.

전남은 농어촌·산간·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많아 의료 서비스 수요는 높은 반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력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생활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는다.

197개국, 2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COP28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함께 공동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지지 선언도 이어져 유치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도는 COP28이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에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전남의 브랜드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모든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시설인 방사광가속기는 이차전지, 신소재, 신약개발 등 차세대 유망산업 연구에 전방위로 활용되고 있다.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한전공대와 호남권 소재 대학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배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블루 이코노미 성과가 22개 전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6대 프로젝트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며 "특히 2020년에는 3대 핵심과제 모두 지역 발전의 확실한 기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민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장성군,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에 12억

384동 처리... 취약계층 우선 지원 2011년부터 2347동 슬레이트처리

장성군이 노후된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올해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총 38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처리 대상이 비주택(창고, 축사 등)까지 확대되어, 주택 슬레이트 325동, 비주택 슬레이트 59동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가 우선 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은 가구(동)당 최대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344만 원, 비주택은 가구(동)당 최대 172만 원이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장성군은 안전하고 신속한 석면 처리를 위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총 2,347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경북도, 신종 코로나 경제대응체계 가동

23개 시군별 책임자 지정, 동향 파악 4대 분야에 상황별 신속 대응책 마련

경상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감염증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간 코로나 대응 경제 핫라인을 구축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대응 경북경제 핫라인'은 도와 23개 시군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경제분야 긴급 동향을 즉시 파악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협

력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역관광, 지역수출, 기타 CV 지역경제애로 등 4대 분야에 대한 상황별 대응책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 1월 31일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 주재로 시·군 경제부서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역 경제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경상북도는 시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코로나바이러스인한 만일의 경제영향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마스크·손세정제 등 관련용품의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소상공인 특별대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경제 관련 예산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별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고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광주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도·광역시 1위

교통사고 줄이기 팀 구성, 높이 평가

광주시는 2일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전국 특별자치도·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운전형태, 보행행태 등 3개 영역 18개 항목을 조사·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2019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14위에서 2018년 2위로 뛰어오른 후 다시 한번 교통안전 도시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 전문성과 예산 확보, 교통안전 정책 이행정도 등을

나타내는 교통안전 지표에서 13점 만점에 10.44점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교통문화연구소 등 17개 유관기관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윈윈 체계를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통합교통안전 교육, 교통문화안전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며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범시민 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관기관 회의

화순군, 신종 코로나 우려 '행복 군민 대화' 잠정연기

화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월 14일 개최할 예정이던 '행복공감대화'를 잠정 연기했다. 군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인 '행복공감대화'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5 | 해질 / 17:57

2월 3일 (월)
음력 : 1월 10일

수도권 날씨 **-3 ~ -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7/2, 동두천 -6/3, 가평 -6/3, 양평 -3/4, 용인 -1/3, 평택 -4/3, 수원 -1/3, 인천 -2/2, 서울 -3/2, 파주 -6/2, 백령도 -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